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47 회색과 시대

피카소, 전쟁의 참혹함 회색빛으로 표현

●색채와 시대

봉건시대 포고 관리들은 문장(紋章)의 상징색을 9가지로 사용하였는데, 하얀색이나 은색은 신의와 순결을 상징한다.

과거 제정러시아 때 8가지 이념을 색으로 나누었는데, 별다른 사상적 경향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회색으로 분류되었다.

괴테(Goethe, 1749년~1832년)의 비극 <파우스트(Faust)>에는 '근심', '결핍', '죄', '곤경', '4명의 회색 여자'가 등장한다. 게으른 대학생으로 나오는 바그너(Wagner)는 악마 메피스토(Mephisto)가 하는 색채의 풍부한 말을 즐겨 인용한다. "귀한 친구여,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생의 황금 나무는 초록이라네 라고."

영국의 추리 소설가인 아가타 크리스티(Christie, 1891년~1976년)의 범죄소설에 등장하는 에르콜 푸어로 탐정은 회색의 뇌세포에 의지하며 싸운다.

회색으로만 그려진 가장 유명한 그림은 피카소(Pablo Picasso)가 1937년에 그린 <게르니카(Guernica)>이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로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랑코(Francisco Franco, 1892년~1975년) 장군의 공중폭격 명령으로 주민 전체가 몰살당했다.

회색은 각진 물건의 색이고, 회색 물건은 거칠게 보인다. 외관을 무시하는 공장의 콘크리트 건물과 군대의 막사는 회색이지만 그러나 커다란 저택



피카소 작 '게르니카(Guernica)'. 위키백과 캡처

은 하얀색이다.

1930년 화가이자 색 이론가인 한스 아돌프 뷔러(Hans Adlof Buhler)는 신문을 읽는 독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오늘날 신문을 읽는 사람은 내부도 회색, 외부도 회색이다."

우리나라의 꿈 해몽에 있어서, 은색이 나타나는 꿈은 만족감이나 지성에 대한 자신을 나타내며, 어느 정도의 성공을 암시한다. 회색의 연상 작용은 외로움, 쓸쓸함, 고난의 상태, 은퇴, 슬픔, 겸손, 무관심, 권태감과 관련된 색이다. 이 색이 나타나는 꿈은 건강운, 성공운, 연애운, 인기운이 내려가고 있으며, 기관이나 사건의 현장 그리고 사업장을 암시한다.

●색채와 중세

회색 잎의 로즈메리(rosemary)는 슬픔의 상징으로 묘지에 많이 심는 꽃이며, 중세의 꽃말도 '배신당한 사랑'이다.

하얀색이나 검은색이 혼합된 색은 우울하게 보인다. 파르스름한 회색, 빨그스름한 회색, 노르스름한 회색은

있지만 빛나는 회색은 없다. 색채심리에서 회색과 반대되는 노란색과 주황색은 빛과 삶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색이다.

가고일(Gargoyle)이라는 색은 중세건축에서 괴물 형상(가고일)의 빗물받이를 이미지시킨 어두운 회색을 말한다. 어둠의 세계에서, 빗물을 모으는 괴상한 물건은 악귀를 쫓아내는 기묘한 자태로 호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괴물 형상은 고딕건축 지붕의 물받이로 입을 분떠 만들어졌다.

●색채와 종교

회색은 삶의 기쁨을 파괴하는 비참한 색이다. 기독교에서 회색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한다. 가톨릭 사제는 화려했던 사육제가 끝나고 '재의 수요일'에 신자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주며 참회를 요구한다.



문화예술 기획사/철학박사·미학전공

'하나된 오월'의 첫 걸음



취재수첩

강주비
취재2부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발자취에 따라 다양한 조례들이 발효됐다. 1998년 5·18기념재단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2002년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2005년 '5·18사적지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등이 줄줄이 제정됐다. 뒤이어 2013년에만 4개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광주의 5·18 관련 조례는 그간 12개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이 조례들은 종종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 관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실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여러 단위에서 반복 추진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시민단체와 공법단체 등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오월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시가 준비에 나섰다. 5·18 관련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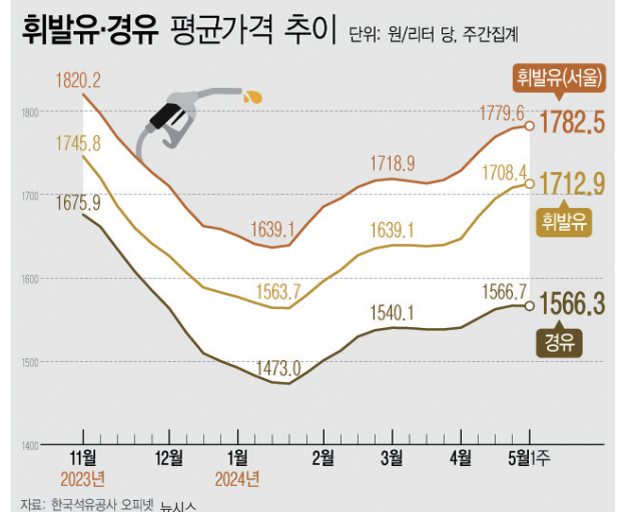
통합조례는 '5·18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5·18정신계승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통합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일 공포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계승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추후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통합조례는 이미 공포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하나로 통합'된 조례가 '하나되는 오월'의 첫 걸음으로서, 5·18 정신 계승·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길 기대해본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